

대구광역시

“좋아졌다” 국힘... “굳혔다” 민주 “120석~151+α”

국회의원 민주 수도권 20곳 PK 15곳 국힘 수도권 26곳 PK 13곳 최대 승부처 122석 수도권

22대 4·10 총선이 이틀 남았다. 지난 7일 각 정당별 의석수를 예상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120석에서 151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의힘은 110~120석으로 예상됐다. 조국혁신당은 10석 안팎이 전망됐다. 각 정당별 자체 관세와 전문가들이 예상한 의석수를 조사해 종합한 결과다.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110~120석 확보가 예상됐다. 이 가운데 정당 투표 지지율을 감안한 비례대표 예상 의석인 17~20석을 제외하면 지역구 의석은 90~100석으로 전망된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253개 지역구 중 84곳에서 승리한 점을 감안하면 관세를 다스려 낙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구제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존 관측이던 '82석+알파(α)'보다는 많고 그 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우세 지역을 110곳, 경합지역을 50곳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 지역구 254석 중 110~160곳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민주당 안팎에선 비례대표와 접전지역 여론조사 결과들을 감안하면 '120석-151석+α'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최소 10석+α'를 예상하고 있다. 경합지역은 양당 모두 50~55곳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대 승부처는 122석이 걸린 수도권이다.

민주당은 서울과 인천·경기 20곳을, 국민의힘은 서울 15곳과 인천·경기 11곳 등 26곳을 경합지로 꼽았다. 용산·중·성동을 동작을, 영등포를 등 한강벨트 지역 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최대 접전지 한강벨트와 낙동강벨트에서 '해불만 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런 기류를 반영한 듯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후 서울 용산·중·성동을 등 한강벨트 지역구를 총 14번 방문하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회의원 40명을 뽑는 부산·울산·경남(PK) 역시 양당 모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PK에서 15곳을, 국민의힘은 13곳을 경합지로 분류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의석수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총선 결과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접전지 대부분에서 승리하며 170석 정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한강벨트와 경기도 지역 일부를 가져가며 113석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은 9~10석 정도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도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과 거의 비슷한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수의견이긴 하나, 국민의힘 승리를 예측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사전투표율이 높고 민주당 후보들의 막말 논란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 표심이 여당으로 향한다면 국민의힘이 의외로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조여은 기자**

박빙 조지연-최경환, 고발하고 고발당하고...

수성-탈환 한반 승부 경산대첩... 선거전 과열



경산대첩이 초반방이다. 경산시선거구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와 무소속 최경환 후보 캠프가 상대방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종반 선거전이 과열로 치닫고 있다. 최 후보는 지난 5일 경산공설시장 유세에서 지난 3일 조지연 후보가 자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분, 기권한 분”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조 후보를 4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경윤 기자**

최 후보는 “국회의원 300명 중 공개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한 사람은 저 1명 뿐”이라며 당시의 퇴장 장면이 담긴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최 후보 측은 또 조지연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경산시와 산하기관 사무실을 방문해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경산시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지연 후보 측도 곧바로 맞대응했다. 조 후보 선거대책위는 5일 “최 후보측이 불법선거운동 의혹으로 선관위에 고발 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3월 21일 경산공설시장에서 무소속 후보는 복당이 불가함을 재차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최경환 후보는 ‘당선이 되면 입당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 발송해 경산시민의 올바른 선택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소속 후보 운동을 하는 경산시의원이 복당 관련 불법유인물을 대량으로 살포하다가 선관위에 고발을 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며 “최 후보와 불법선거운동 행위자는 불법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신경윤 기자**

예천, 2024 양궁 최종 국가대표 선발전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파리 올림픽 출전권 부여



대한양궁협회가 주최하는 2024년 양궁 국가대표 최종 2차 평가전이 5~11일까지 7일간 예천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다. 평가전은 지난 1차 평가전 때 리커브 및 컴파운드 남·여 각 8명이 획득한 점수에 2차 평가전 점수를 합산

해 상위 3명의 선수를 선발한다. 3명의 국가대표는 앞으로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2024년 프랑스 파리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종목별 8명의 양궁 국가대표 중 오는 7월에 개최되는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누가 획득할지 전 세계 양궁인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남자 리커브에는 2020 도쿄올림픽 2관왕이자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김제덕 선수(예천군청)와 김우진 선수(청주시청)다. 여자 리커브에는 2023년 아시안게임 양궁 3관왕에 빛나는 임시현 선수(한국체대)와 여자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최미선 선수(광주은행) 등 세계 최정상급의 궁사들이 불꽃 튀는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예천에서 경기를 펼치는 모든 선수들이 각자의 능력을 십분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 바란다”고 격려하고 “파리 올림픽에 앞서 개최되는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에서도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명옥 기자**



‘2024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 8200여명 달렸다 전국 10대 대회인 ‘2024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가 7일 성황리에 열렸다. 대회는 풀코스 396명, 하프코스 905명, 10km코스 1,865명, 5km코스 4,954명 등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8200여 명의 선수와 가족, 자원봉사자 등 1만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참가 선수들은 봄기운이 완연한 소백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소수서원, 선비촌 등 유서 깊은 문화유산 주변을 달리며 마음껏 기량을 펼쳤다. **(사진=영주시제공)**



세계최고 신비의 섬 울릉나들이는 **오명관광여행사**와 함께 여행안내 054-791-1717

단체장 일정



윤경희 청송군수는 8일 오전 군청 제회의실에서 실·과장 및 읍·면·장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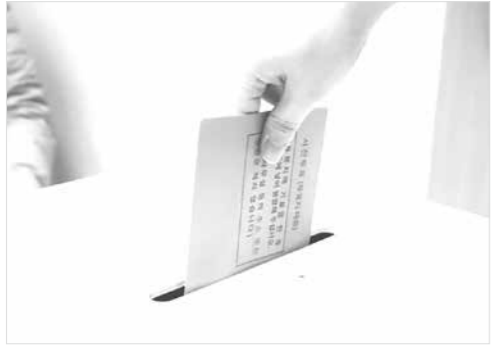


오도창 영양군수는 8일 오전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TK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마감...지난 총선보다 높아

사전투표율 대구 25.6% 경북 30.75%



대구·경북의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결과가 발표됐다. 타지역에 비해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집계 결과를 보면 5·6일 실시된 이번 총선 사전투표 결과, 대구에선 유권자 205만1656명 중 52만5222명이 참여해 누계 25.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역대 선거의 사전투표율과 비교해 보면 2020년 21대 총선 때의 23.56%보다 2.04%포인트(p) 높지만, 2022년 20대 대선 때의 33.91%보다는

8.31%p 낮다.

이번 총선의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누계 31.28%다.

대구 지역은 사전투표 첫날(12.26%)과 둘째 날(13.34%) 모두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경북의 사전투표는 총 유권자 222만 4011명 중 68만 3826명이 투표해 30.75%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지자체 중 6번째로 높은 것이다. 전국 평균(31.28%)보다는 0.53%포인트(p) 낮다.

역대 선거의 사전투표율과 비교해 보면 2020년 21대 총선 때의 28.7%보다는 2.05%p 높지만, 2022년 20대 대선 때의 41.02%보다는 10.27%p 낮다.

경북의 이번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16.24%, 둘째 날은 14.51%다.

시군별로는 의성군이 45.85%로 가장 높고, 포항시 남구가 25.03%로 가장 낮다.

정가에선 대구의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해 “주목할 만한 ‘빅 매치’도, ‘핫 이슈’도 없는 밋밋한 선거판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여은 기자

조원진 “국힘과 합당해 尹정부 성공 앞장”



우리공화당 조원진(대구 달서구병) 후보는 지난 6일 “선거 이후 국민의힘과 합당하여 보수를 힘있게, 더 크게 외연을 확장하겠다. 좌파들의 탄핵음모를 반드시 막고 윤석열 정부 성공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이날 오후 두류공원에서 선거 압승 굳히기 집중유세를 진행하며 이같이 지지를 호소했다. 조미경 기자

조 후보는 이날 집중유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좌파세력들이 노골적으로 거짓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보수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권영진 후보에게 기댈 것은 없다. 조원진이 국민의힘과 합당하여 이재명 민주당과 맞서 싸우겠다. 믿음직한 조원진을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옛 두류정수의 대구시 신정사를 원안대로 완공하기 위해 흥준표 대구시장과 지속적으로 정책협의를 하고, KTX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사업 우선적 추진, 대구취수원 이전 등 대구와달서구의 현안을 깔끔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당선되면 4선 국회의원으로서 대구달서를 정치 일번지로 만들고, 흠어진 보수우파의 민심을 반드시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미경 기자

대구 총선 격전지 막바지 표심 잡기 총력전

대구지역 각 후보들이 4·10 총선 전 마지막 휴일인 7일 선거운동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공천 반복 사태로 보수 표심이 분열돼 이번 총선 대구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중·남구 선거구 후보들은 선거 막바지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김기용 국민의힘 후보는 “민생과는 동떨어진 정책과 선거결과를 왜곡하기 위한 자극적인 가짜뉴스·흑색선전 등이 국민을 분열시켜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정책통인 저를 구회로 보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남산과삼덕성당, 관문교회 등지에서 지방의원 등과 함께 합동유세를 진행하며 세(勢) 과시한 김 후보는 오후에는 유세차량을 타고 지역구 내 시장과 아파트 등을 돌며 표발을 다진다.

5·18 폼페 발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도태우 후보는 이날 오전 7시 대명성당을 시작으로 고산골 입구 등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에서 지지자들과 보수 표심을 공략했다.

‘대구가 지킨다 보수’의 자존심을 슬로건으로 내건 도 후보는 “진짜 보수”라고 강조하며 “중구와 남구에서 보수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도 후보는 오후 앞산백래더공원 등을 돌며 지

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른시간 달성공원 새벽시장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유세에 나선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허소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남산교회와 대안성당을 찾아 대면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후에는 대명성당과 신천동치산책로에서 “두 번의 청와대 국정 경향을 갖춘 저를 선택해 달라”며 선거운동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6선을 노리는 주호영 국민의힘 후보와 강민구 민주당 후보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선 유일한 녹색정의당 후보인 김성년 후보와 김기현 무소속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신매네거리 아침 인사에 나선 강 후보는 오후에는 만촌동과 범어동, 황금동 아파트를 돌며 ‘백치기 유세’를 한다.

백치기 유세는 대구도 군중 유세가 아닌 아파트 베란다나 주택 담벼락 등을 바라보며 혼자 연설하는 방식이다.

대구 경북 최다선인 5선의 현역의원인 주 후보는 이날 오전 안동지역 유세지원에 나선 뒤 오후에는 연예인 정동단과 함께 화랑공원을 찾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한다.

김성년 녹색정의당 후보와 김기현 무소속 후보도 시장과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돌며 시민들을 만나 표발을 다질 예정이다. 조미경 기자



한동훈 “뭉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대구 찾아 전통적 지지층 총결집 호소

자기를 지켜달라고 징집대는 이재명·조국에 나라 맡겨선 안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다시 대구를 찾아 전통적 지지층에 결집을 호소했다.

한 위원장이 대구를 찾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달성 사저를 방문한 이후 11일 만이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대구 서문시장과 동성로를 잇달아 방문해 국민의힘 후보들을 지원 사격 한 바 있다.

이날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를 찾은 한 위원장은 이른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꺼내 들며 보수 표심을 일깨웠다.

그는 “대구·경북이 지금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며 “지금 이 선거는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겠다는 선거로, 여러분들이 나서주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양쪽이 결집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장에 누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승부가 결정된다”며 “관중석이나 사이드라인에 앉아 계시지 말고 내려와서 직접 선수로, 주인공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항상 이런 식이다. 자기를 지켜달라고 징집한다. 죄를 지어놓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요구한다”며 이 대표와 조 대표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다. 국

민이 힘이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지켜달라’고 여러분께 읍소하고 징집대지 않고, 대신 저희가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뭉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 뭉쳐 주시라”며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범죄자들에게 나라를 내주려 하시느냐. 내려와 저희와 함께 나라를 지켜달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의 이날 동성로 방문에는 대구지역 출마자 12명과 당원, 지지자, 보수 유튜브 등 1000여명이 한꺼번에 몰려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한 위원장은 총선 직전 마지막 주말인 오는 7일에는 ‘민심 바로미터’로 불리는 총청과 대전을 방문해 중원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조미경 기자

한동훈, 경산 조지연 지원 유세 조 “이재명·조국 정당과 싸울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경산역에서 가진 유세에서 “범죄자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우리는 뭉쳐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무차별 공격하고, 조지연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망할지도 모르는 중대한 선거이다. 나중에 우리가 뭉쳐서 범죄자들 몰아내고, 미래를 지켰다고 스스로 칭찬하길 바라느냐”면서 “범죄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저희들 뿐이다”며 조 후보의 승리를 호소했다. 조 후보도 “국민의힘이 많이 어렵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결이 있게 파렴치한 범법자 정당, 이재명 정당, 조국 정당과 싸워야 하는데 깨끗한 젊은 일꾼을 국회로 보내 달라”며 “저는 배신을 모르고 끝까지 자유의 가치를 지켜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끝까지 지켰다. 경산시민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운 기자

대구시선관위원장, 투표함 보관·관리상황 점검



한재봉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수성구선거관위 위원장과 함께 우편투표 접수상황 및 사전·우편투표함 보관·관리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에는 관외사전투표 표를 비롯한 거소·선상투표, 재외투표 등의 우편투표 회송용봉투가 접수됐으며,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는 사전투표 첫날 각 사전투표소에서 이송된 관내사전투표함 23개를 보관중이었다. 관내사전투표함이 보관 장소에 인수·보관되기

까지 과정과 우편투표함을 비치하고 사전투표 회송용봉투 등을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하는 전과정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 위원이 입회·확인하게 된다.

투표함 비치·적치 후부터 투표함 보관장소 출입 통제·방법시스템이 작동해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되기 전까지 보관장소 출입이 철저히 관리된다.

보관기간 중 24시간 CCTV 녹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된다. CCTV는 대구시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도 24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투표함 보관장소 영상녹화는 보안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접근이 차단되며, 보안성이 강화된 기술을 적용하여 위변조할 수 없다.

한재봉 대구시선관위 위원장은 우편투표 및 사전·우편투표함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남은 선거일 투표에도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 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com

발행인 김명숙 | 편집인 김성용 | 편집국장 김현석 | 부사장 조여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57-9000	경영지원국	053-257-5000	광고국	053-25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5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8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5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4월 8일 월요일 3



홍준표 대구시장, 국회의원 선거 투표 독려

홍준표 대구시장은 부인 이순삼 여사와 함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날 중구삼덕동 사전투표소를 찾은 홍시장은 사전투표를 마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

표 참가를 독려했다.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대구 150개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지만, 본 선거일인 오는 10일

에는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꼭 참여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국제마라톤, 에티오피아 루티 아가 소라 여자부 우승

2년만에 대회신...2시간21분08초
남 스테프 키프롭 2시간7분4초 우승
국내 남자부 이동진·여자 정다운 1위



'2024 대구국제마라톤대회'에서 에티오피아의 루티 아가 소라가 2년 만에 대회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부에는 케냐의 스테프 키프롭이 2시간7분4초를 끊으며 전체 및 남자부 1위를 차지했다. 여자부는 루티 아가 소라가 여자부 레이스에서 42.195km를 2시간21분08초로 1위로 끝냈다. 지난 2022년 에리트레아의 나즈렛 웰두 게브레



하웨트가 달성한 2시간21분56초를 48초 앞당긴 대회신기록이다. 7일 열린 대회는 대구스타디움에서 출발해 범어네거리와 수성못, 반월당, 동대구역 등을 거쳐 출발지로 돌아오는 순환코스로 진행됐다. 23화제를 맞은 대회는 17개국에서 160명의 정상급 엘리트 선수와 마라톤 동호인, 시민 등 55개국에서 2만8000여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국내 남자부에서는 2시간18분04초를 끊은 이동진(대구시청)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국내 여자부에서는 정다운(한국수자원공사)이 2시간34분32초로 가장 좋은 기록을 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2년째 골드라벨을 획득한 대구국제마라톤 엘리트 부문 우승 상금은 16만 달러(2억1500여만 원)로 지난해(4만 달러)보다 4

배나 뛰었다. 세계육상경기연맹 라벨 인증 대회는 최상위 등급으로 플래티넘이 있고 이어 골드라벨, 엘리트라벨, WA라벨 순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는 서울국제마라톤대회가 유일한 플래티넘 대회이고, 대구국제마라톤은 유일한 골드라벨 대회다. 55개국에서 2만8000여명의 마라톤 동호인,

시민 등이 참가한 대회는 풀코스(42.195km)와 10km, 건강달리기 4가지 종목으로 나뉘어 치러졌다. 대구스타디움 일원은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중구와 동구, 수성구 일대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시간대별로 교통이 통제됐다. 마라톤대회가 열리는 지역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73개 노선은 우회 운영했다. 조여은 기자

비슬산 참꽃 개화상황, 유튜브 라이브로 보자

참꽃문화제 13~14일 열려

달성군은 지난 5일부터 비슬산 참꽃 군락지에 방송장비를 설치하고, 비슬산 참꽃을 안방에서도 구경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서 깊은 사찰인 대건사 뒤편에 위치한 비슬산 참꽃군락지는 이 시기만 되면 30만 평의 넓은 대지에 참꽃이 만개하여 진분홍의 화원을 만들어 낸다. 이를 직접 눈으로 보려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매년 달성군에서는 참꽃 개화상황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있다. 달성군청 유튜브 채널인 '전국달성자

랑'(https://www.youtube.com/@dalseonggun)을 검색하거나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실시간으로 참꽃군락지의 절경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참꽃군락지의 실시간 개화상황을 안내하고,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없어 울헤 비슬산을 방문하지 못하는 관광객들에게도 볼거리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참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비슬산을 방문하시어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참꽃을 쉽고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도록 달성군 공식 유튜브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으니 '전국달성자랑'을 많이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국제안경전 성료, 코로나19 이후 최대 성과

사흘간 29개국 총 1만명 이상 참관
수출 461억 내수 119억원 상담 성과

'2024 대구국제안경전(DIOPS 2024)'(이하 디옵스)이 지난 5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국내 안광학 분야 최대 규모 전시회인 디옵스는 대구시가 주최하고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이 주관했다. 152개사, 353부스 규모로, 안광학산업 관련 기업, 바이어, 협회 및 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만 105명이 참관했다. 29개국 825명의 해외 바이어와 3417만 달러(한화 약 461억원) 규모의 수출상담이 진행됐다.

디옵스 기간 동안 개최된 온라인 수출상담회에는 말레이시아 바이어 16개사와 국내기업 15개사가 167만 달러(약 23억 원) 규모의 상담이 진행되는 등 역대급 성과를 이뤘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34% 상승한 성과로 코로나19 이후 최대 성과이다. 올해 신설된 디옵스 혁신상은 독창적 디자인과 사용자 중심의 혁신적 기술력을 인정받아 '휴브 아이웨어', '월드트렌드', '두눈이 디자인' 분야에서, '네오비전', '썬에이글로벨', '마치아이웨어'가 기술 분야에서 각각 수상 영광을 누렸다. 수상기업들은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지원사업가점 우대 및 2025년 디옵스 특별관 운영, 국내외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스마트글라스 특별관 △K-아이웨어 메타버스 홍보관 △북구안경특구 우수기업관 △소상공인 공동관 등 다채로운 특별관이 동시 개최됐다. 이번 디옵스에 참가한 기업은 "전시회 기간 동안 많은 국내외 바이어들이 부스를 찾아 판로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이번 전시회는 바이어 유치에 특히 많은 노력을 한 것 같다"며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안중권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대구국제안경전인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두게 돼 매우 기쁘다"며, "대구시가 안광학산업 중심 도시의 위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중구보건소, 어르신·저소득층 무료 치과 진료

중구보건소와 중구치과의사회는 지난 5일부터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중구보건소 내 구강보건실에서 매주 금요일에 무료 치과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금요일 무료치과 진료는 중구치과의사회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진행된다.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중구보건소 1층 구강보건실에서 구강검진, 치면세마 및 간단한 충치 치료 등의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료 치과 진료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중구보건소 구강보건실로 사전 전화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무료 치과 진료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중구보건소 구강보건실(☎661-3888)로 연락하면 된다. 황석선 보건소장은 "금요일 무료치과를 통해 치과 방문이 어려운 구강보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강보건 증진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달성군, 고독사 예방 '건강음료 배달사업' 협약

달성군은 지난 3일 (주)hy 대구지점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1인 가구 안부확인 및 사회적 단절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건강음료 배달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강음료 배달사업은 유제품을 전달하면서 지역 내 홀로 지내는 중장년 가구의 정서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내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업무 협약은 안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고독사 위험군 100가구를 선정해 주 2회 음료를 전달하고, 음료 미수거 등 의심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프레스시 매니저를 통해 군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게 위기상황을 전달하는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하기 위하다. 현재 달성군에는 hy 프레스시 매니저가 약 7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건강음료 배달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부 확인을 실시해 고독사 예방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조여은 기자



수성구, 수성주니어보드 출범

수성구청은 수성주니어보드를 구성하고 첫 운영에 들어간다.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수평적 소통의 혁신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난 3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수성주니어보드 참여 공무원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구청장은 "단인 인식에서 비롯되는 위험성을 말하며, 직원들에게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 수성구를 위한 정책과 의견을 자유롭게 내어줄 것을 주문했다. 수성주니어보드는 7급 이하 MZ세대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 청년 중역회의로, 4개 팀이 올 연말까지 8개월간 활동할 계획이다. 수시회의와 분기별 정기회의, 구 주요사업 현장 방문, 수미창조 포럼 등에 참여, 조직문화 개선방안과 미래 핵심 과제 도출에 나선다. 조미경 기자

수성구-독일 카를스루에 市간 우호협력 강화

카를스루에 부시장 일행 구청 방문
스타트업·디지털산업 협력 모색 계기

독일 카를스루에(Karlsruhe)시 부시장과 카를스루에 공과대학교(Karlsruhe Institute of Technology, 이하 'KIT') 학생 12명은 4일 우호도시를 맺은 대구 수성구를 방문했다. KIT 대학생 기업가 그룹의 스타트업 기업 투어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방문은 알베르트 코이플라인(Albert Käuflin) 카를스루에 부시장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성사됐다. 이날 알베르트 코이플라인 부시장과 KIT 대학생들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 대경ICT산업협회 기업가 간담회에 참석하고, 창업보육센터 대구스케일업허브(DASH) 등을 견학했다. 수성구를 찾은 '파이오니어 거라지(Pionier Garage)'는 독일 우수 공과 대학교인 KIT에서 스타트업과 기업가 정신을 연구하는 대학생 기업가 모임이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파악하고 경제·문화·사회적 관점으로 시야를 넓히기 위해 매년 스타트업 투어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수성구, 서울, 대전, 부산)과 일본 주요 도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알베르트 코이플라인 부시장은 "양 도시는 지난해 체결한 우호 교류 협력 의향서를 통해 깊은 우의를 다져왔다"며 "특히, 이번 만남은 다방면의 교류를 가능성을 확인하고,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시야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카를스루에 공과대학교 학생들의 수성구 방문이 스타트업 및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성청과 독일 카를스루에시는 지난해 7월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래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지역 청년 성악가가 카를스루에서 국립극장에서 성공적인 해외 데뷔를 마쳐 두 도시간 우호 교류협력의 성공적인 신호탄을 알렸다. 이달 말부터 카를스루에 공무원이 6개월간 수성구 파견 근무를 하며, 오는 7월에는 현지 시즌 오페라 무대 데뷔 오디션과 오픈스튜디오(OpenStudio) 오디션 개최가 예정돼 있다. 조미경 기자



DGB금융그룹, 부동산원과 '네이버 해피빈 더블기부' 사업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한국부동산원, 네이버 해피빈과 네티즌 기부만큼 기업이 후원하는 더블기부사업을 위한 사업비 전달식을 진행했다.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

원을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네티즌과 기업의 기부금이 1대 1로 매칭되며 목표 달성 시 총 7300만원의 기부금이 조성된다. DGB사회공헌재단과 한국부동산원의 업무협약

에 따른 공동사업으로 후원금이 기탁됐으며 기부금 또한 생명의 온도 36.5도를 상징해 3650만원이 기탁돼 의미를 더했다. 해피빈 더블기부사업은 오는 8월부터 약 한달간 진행되며 아동·청소년을 위한 영양식 지원, 가정의 달 이벤트, 교육기기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지 지원이 이뤄진다.

첫 출근했더니 “다른 학교로 가라”… 충격받은 교사 병가

교사노조, 경북교육청 잘못된 업무처리 방식 문제라고 지적

개학 첫날인 지난달 4일 울진 지역 학교로 발령을 받은 교사가 출근하자마자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통보를 받았다.

경북교사노조에 따르면, 당시 A교사(여)는 개학을 맞아 B초등학교로 첫 출근을 했다. 그리고 같은날 오후 학교 긴급회의에서 A교사는 청천벽력같은 통보를 받았다.

학생 4명이 전학해 학급 수가 줄면서 1명의 교사가 남게 됐으니 다른 학교로 이동하라는 것이었다.

A교사는 지난 2월 이 학교에 발령이 나면서 학교 근처로 이사하고, 2월 미리 출근해 교실 대청소를 하는 등 학생 맞이 준비를 했다.

개학 당일 오전에는 학생들과 만나 서로 소개하고 알림장까지 써 보냈다.

옮겨 가라고 한 학교는 집에서 40여km 떨어진 곳이다.

교사 경력 3년인 이 교사는 매일 왕복 85km를 출퇴근해 오다가 갑작스런 인사조치에 따른 충격으로 이번주부터 병가를 냈다.

이 교사는 “지난해 학교 내부에서 1학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거론된 걸로 알고 있다”며 “학급편성을 무리하게 한 학교는 물론 이같은 일에 대비한 제도적 지지를 마련하지 않은 교육행정이 답답하다. 나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일은 포항에서도 있었다.

포항의 모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전학으로 3학년과 5학년이 1학급씩 줄게 돼 2명의 교사들이 출근 사흘 만인 3월7일자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교사노조는 경북교육청의 잘못된 업무처리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다른 교육청에 문의해 보니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개학일 이후 학생의 전학으로 학급 수가 줄더라도 정해진 교사 발령은 변경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반면 경북교육청은 개학일 오후가 돼야 최종 학급 수 관련 보고를 받도록 함으로써 이미 학생들과 만난 담임교사를 강제로 전보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학교의 내규도 문제 삼았다.

노조에 따르면 울진의 B초등학교 인사내규는 “현재 학교 근무 기간이 가장 짧은 사람, 경력이 같으면 나이가 적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내보내도록 돼 있다.

교사노조는 “경력과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이동하는 게 상식인데 이 학교는 반대”라며 “이런데도 이 학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노조 관계자는 “갑자기 먼 길을 강제로 출퇴근해야 하는데도 교육청 차원의 어떤 지원도 없다”고 전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런 문제로 인사담당 장학사 및 교장 회의때 학교자체에서 학생들의 전학 여부를 사전에 신중하고 세밀하게 판단하도록 안내했다”고 답했다.

학교 내규에 대해서는 “울진의 학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같은 일이 있는 포항의 학교는 이 학교와 달리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우선적으로 이동하도록 돼 있다. 교육청이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인사내규를 통일할 수는 없으나 기준을 바꾸도록 권고하겠다”고 했다. 이정수 기자



상주보건소, 금연구역 시외버스터미널 집중 단속

상주보건소는 최근 금연 지도원들과 함께 금연 구역인 시외버스터미널을 집중 지도·점검을 했다. 시외버스터미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흡연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로 평상시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 중 하나이다. 보건소 담당자와 금연 지도원들은 시외버스터미널 관계자와 버스 운전기사들을 만나 금연 구역 내 흡연 자제와 금연 클리닉 홍보 등 지속적인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재동 보건소장은 “금연 지도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금연 제도 활동으로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느림보’ …

경북교육청, 작년 74개교 개선 목표… 실제 개선 고작 30개교 40.54% 불과 전국평균 밀돌아

경북도내 학교의 급식실 조리시설 환기설비 개선 속도가 거북이다.

7일 강득구 국회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이 완료된 학교는 전국에서 884개교로 전체 목표치 대비 42.81%에 불과했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74개교에 대해 개선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 개선이 이뤄진 것은 30교로 40.54%에 불과해 전국 평균을 밀돌았다.

2022년 시도교육청별로 급식실 환기설비를 점검했었을 때 환기설비가 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약 97%로 확인됐다.

지난해와 같은 추진 속도로는 전체 학교의 환기설비를 개선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계산됐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10년 동안 희생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더욱 적극적인 추진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분석 결과 지난해 폐질환을 포함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1505건으로 2020년보다 2.17배 늘었다.

학교급식 종사자 전체 퇴직자 중 입사한 지 6개월 이내에 자진 퇴사한 비율은 2022년 기준 36.6%이고 신규채용 미달률은 2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같은 결원 사태의 원인은 높은 재해 위험성, 열악한 노동강도, 구조적 저임금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용 기자

경산, 청년 취업 창업 꿈 이루는 도시 건설

경산시는 4일 시청에서 ㈜KT, ㈜POSCO 등(이하 공동 참여사)과 함께 2024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경산시와 공동 참여사는 이번 협약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동 참여를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경산시를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의 표준으로 만드는데 협력한다.

협약 내용은 청년과 시민참여 중심의 경산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협력 △산업 지원용 SW 인재 양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SW 인재 양성과 창업 지원 등이다.

신경운 기자

상주, 북한이탈주민 함께 힐링 역사 문화 탐방가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주협의회는 상주에 사는 북한이탈주민 및 자원위원 30여 명과 함께 힐링 역사문화탐방을 가졌다.

북한이탈주민 힐링 역사문화탐방은 자문위원과 함께 지역명소를 걸으면서 남한에서의 생활·문화방식 등에 대해 소통했다.

남북한문화적 차이를 해소,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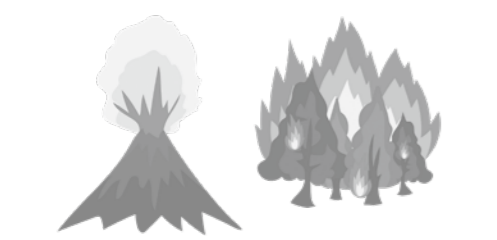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은 파독전시관에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독립광부와 간호사의 삶을 견학했다.

원효대사가 창건한 남해 보리암 일대를 함께 걸으면서 가족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윤경환 협의회장은 “북한에 남겨진 가족의 미안함과 그리운 마음, 고향에 갈 수 없는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야겠지만 인연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는 희망을 안고 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 산불 막아라 특명

대형산불 10건 중 4건 4월 산불방지 총력 대응 총비상



경북도가 대형산불이 나기 쉬운 4월 한 달 동안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10년간 산불특별대책기간(3~4월) 중 평균 22.4건의 산불로 91.19ha의 피해가났다.

주요 원인은 소각산불 34%, 입산자실화 27%, 성묘객 실화 6%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이 발생했다.

4월은 전체 대형산불 건수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와 시군의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감시원 2571명, 감시카메라 228대, 드론 80대, 감시탑 253개 등을 활용해 감시를 강화한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1077명과 공무원진화

대 2313명,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공중진화대 76명과 가용헬기 37대(시군 임차 19, 산림청 9, 소방 2, 군 7대)도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다.

도청 사무관 227명으로 구성된 산불계도 지역책임관과 도내 산림단체 회원 400명으로 구성된 경북도 명예산림감시단도 도내 각지에서 산불 예방 활동을 한다.

산불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 뽑고 자도, 시군, 읍면동 3중 체계로 구성된 소각산불방지 대응반이 밀착단속한다.

도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을 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한다.

불법 소각의 주요 대상이 되는 영농 부산물을 사전에 수거해 파쇄하고, 영농 부산물 파쇄 우수 시군에는 기관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한다.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도협의회와는 민관 합동으로 매주 수요일 영농폐기물과 생활 쓰레기 수거 활동도 한다.

조현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 소각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농관원, ‘예천참기름’·‘일산열무’ 지리적표시 등록

예천참기름 제114호 등록 함께 재배면적 전국 1위… 60년 이상 참기름 생산시설 남아있는 역사·유명성 증명

예천참기름과 경기 일산열무가 지명용 표시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예천참기름과 일산열무가 지리적표시 제114호, 제115호로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등록은 1999년 7월 도입돼 상품의 품질, 명성(역사성과 유명성) 및 그 밖의 특징이 인정된 지역에서 생산·가공됐음을 알리는 제도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구성된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해 ‘예천참기름(Yechon Chamgireum(sesame oil))’, ‘일산열무(Ilsan Yeolmu(Young Radish))’는 지리적표시 등록 명칭을 보호 받는 특산품으로 자리잡게 됐다.

예천참기름은 예천군의 특산품으로 참깨

재배면적이 전국 1위이며, 60년 이상의 참기름 생산시설이 남아 있는 등 역사·유명성이 증명됐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시설에서 가공되는 등 우수한 품질관리 측면도 높게 평가됐다.

일산열무는 서울 근교 농업으로 1960년대부터 알려지기 시작해 지역명칭이 표시된 단무음피지를 사용하는 등 타 지역과 차별화했다.

유기물과 철분함량이 높은 지하수를 사용해 고품질의 열무를 생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지리적표시 등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리적표시품의 품질향상과 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명욱 기자



주낙영 경주시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참여

주낙영 경주시장 내외가 6일 오전 보덕동 사전투표장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이어 현장 선거사무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시민 한분도 빠짐없이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독

려했다.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대구 150개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지만, 본 선거일이 오는 10일

에는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에 시민 한분도 빠짐없이 꼭 참여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APEC 경주유치, 선진시민의식·관광문화 정착 터닝포인트

5월까지 손님맞이 캠페인 대대적 전개 경쟁력 제고·지속적 글로벌관광도시 구축

오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민의 눈에 띄는 유치 전략이 있다.

APEC 정상회의는 각국 정상이 대거 참가하는 국제행사로서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를 주목하므로, 이에 걸맞은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이번 기회를 선진 시민의식과 관광문화 정착의 터닝 포인트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 그것이다.

경주시는 지난 2월부터 상반기 개최도시 결정을 앞두고 지역 사회의 정상회의 유치 의지를 재검토하고 개최도시 시민의 준비된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2025 APEC 경주유치를 위한 선진시민의식 및 손님맞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온 시민이 함께하는 캠페인을 목표로 칭찬하기, 주민의식 갖기, 공익 우선, 배려하기 등 선진시민의식 4대 과제를 통해 글로벌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전개하고, 법과 질서가 바로 선 세계 일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생활환경, 교통, 행사실시 등 3대 기초질서지킴이를 추진한다.

또 한편으로는 친절, 정결, 신용, 안전 등 관광



선진화 4대 실천과제를 통해 경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바가지 요금과 호객행위 없는 친절하고 깨끗한 손님맞이 준비 태세를 확립함으로써 개최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관광도시를 구축하는데 빈틈없이 준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서별 성격에 부합하는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 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핵심 실천과제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서 대시민 현장 캠페인과 시민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유치 공감대 확산에 전력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 또한 세계적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APEC 정상회의의 유치를 위해

서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경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로, 시민 각자는 물론 숙박, 음식, 교통 등 다양한 업종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비만예방의 날'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市, 비만예방 및 시민 건강 증진 공로 인정받아

경주시가 '비만예방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 부문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만예방의 날(3월 4일)을 맞아 비만관련 사업 및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의 비만예방 및 관리 등에 기여한 경주시 보건소를

포함 공공기관 17곳을 선정했다. 경주시 보건소는 지역 건강현황을 고려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 비만예방관리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특히 취약계층과 나눔을 실천하는 워크온 기부 챌린지, 관내 사업장과 연계한 걷기 챌린지와 걷기 동아리 운영 등 시민들의 건강캠페인 개선 및 비만 예방관리에 적극 노력한 점이 높이 평가 받았다.

경주시 해외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제31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 대거 참가

주낙영 시장, 신라인DNA 강조 APEC 경주 유치 설명 中 시안시, 경주-시안-나라 3도시 체육대회 재개최 제안



경주시는 지난 6일 성황리에 열린 제31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에 중국 시안시, 초저우시, 일본 우사시 등 해외자매도시 3곳과 해외우호도시인 중국 이창시가 참가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대회 참가에 앞서 류신평 문화예술연합회 당초 서기를 단장으로 한 중국 시안시 대표단이 주낙영 경주시장을 예방했다.

류신평 단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10월 중국 시안 현에서 개최 예정인 중국 시안시와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에 주낙영 경주시장을 공식 초청했다.

이어 지난 2012년을 끝으로 중단된 경주-시안-나라 3도시 체육대회 재개최도 제안했다. "자매 3도시 체육대회"는 1999년 중국 시안시에서 성백마라톤대회가 개최될 당시 3개 도시 시장들이 만나 성사되면서 물꼬를 튼 대회다.

2년 주기로 각 도시를 순환하며 개최돼 오다 지난 2012년에 불거진 센카쿠 영토분쟁으로 잠정 중단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0월에 시안에서 개최되는 주년 기념행사에 경주-시안-나라 3도시 시장이 모여 자매 3도시 체육대회 개최 재개를 합의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길 기대한다"며,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하여 경제교류단, 예술교류단, 학술교류단을 구성해 시안시를 방문코자 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지난 5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경주시가 주관하는 해외자매우호도시 대표단 및 선수단 환영리셉션이 개최됐다.

이 자리를 통해 해외 자매우호도시간 우정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천년 동안 신라왕조의 수도였던 경주는 실크로드의 거점도시로 당시 매우 국제적인 도시였다. 이러한 신라인의 DNA를 바탕으로 기초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전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하고 있다"며 2025 APEC 정상회의에 대한 성공 개최를 강조했다.

현재 경주시는 해외 12개국 21개 도시와 자매우호도시 결연을 맺고 있으며 2021년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선언 이후 해외 자매우호도시에서 경주 유치 지지 서한문을 보내는 등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전통시장, 장보기 편리한 곳 만든다

전통상가에 27억원 예산 투입 시설현대화로 활력 불어 넣어

경주시가 전통시장·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등으로 상권 경쟁력 강화에 앞장선다.

시는 올해 총 27억 원 예산을 들여 급격한 유통구조 변화 속에서 침체돼 가는 전통시장에 상인과 이용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노후시설 및 안전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중상시장 석면 철거(5억원) △양북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1억5천만 원) △성동시장 알뜰전광판 설치(2억원) △불국사상가시장 불국정원 마켓 조망개선(2억원) △안강시장 아케이드 보수(1억원) △중상시장 바깥거리 조성(6억원) 등을 진행한다.

특히 중앙시장은 석면을 철거하고 1급 불연재로 교체해 화재위험성을 낮춘다. 여기에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과 연계해 공동작업장, 상인



교육장 기능을 더한다. 성동시장은 시장 내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알뜰전광판 2개소를 설치하고 아케이드 물받이를 교체해 누수를 방지한다. 불국사상가시장은 야간까지 오랫동안 머무르고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불국정원 마켓 조망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외 황성상점가 지붕개량, 황남시장 옥상방수 및 전선정비사업 등 9개 소규모 시설개선사

업도 함께 진행한다. 연중 안전한 전통시장 구축을 위해 소방·전기 안전점검, 건물 유지에도 힘쓴다. 시는 대부분 사업설계를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고 5월 중 착공 예정이다. 한편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는 공설시장 11곳, 사설시장 6곳, 상점가 2곳 등 총 19곳이며, 2800여개 점포에 4200여명이 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전통시장상인회 관계자는 "매년 시가 추진하는 시설개선 사업으로 전통시장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돼 방문객 발길이 늘어나 상가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상권이 다시 활성화되는데 경주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장보기가 가능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농산물 가공 종합지원센터 공사 막바지... 10월부터 운영

연면적 893㎡ 규모, 교육 시설 등 시제품 개발·상품화로 농가소득 기대

경주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에 크게 기여할 '농산물 가공 종합지원센터' 공사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올 6월까지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내남 신농업혁신타운 내 농산물 가공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건립한다. 센터는 연면적 893㎡,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되며, 공정률 85%다.

내부는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공교육장, 조리실습장, 품질관리실 등의

교육시설은 물론 전처리실, 건조분말실, 습식 가공실, 반찬가공실 등 특화된 가공시설 기능을 갖췄다.

시는 센터 공용기가 활용으로 농산물 가공 시설을 이용한 지역 농산물의 시제품 개발과 상품화를 지원,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농민들에게 더 넓은 시장 접근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에서 제공되는 가공 교육 및 조리 실습은 농업인들이 직접 가공 기술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자신의 농산물을 이용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시장에 출시함으로써 소득을 다양화할 수 있다.

시는 상반기 내 현재 신경주대학교 내 운영

되고 있는 농산물 가공시설 장비를 이전하고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공정 표준화, 운영조례 제정 및 인력 충원을 거쳐 올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할 방침이다.

시는 농산물 가공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상품 다양화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농산물 가공 종합지원센터는 현장 중심의 기술을 보급하는 교육의 장으로 더욱 활용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 총무새마을과 직원 클린도시 만들기 캠페인

경주시 총무새마을과 직원들과 경자씨(경주

시자원봉사자) 30여 명은 지난 4일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 홍보와 함께 클린도시 경주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들은 황리단길, 대동원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 홍보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 전단지 나눠주며 경주시가 APEC 정상회의의 유치 최적지임을 적극 홍보했다.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영덕국유림관리소,
나무심기 행사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심기 행사를 했다. 행사는 영양군 영양읍 무창리 산62에서 열렸다. 식목일 날 관상수로 적합한 자작나무 400 그루를 심었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조림 사업으로 소나무, 자작나무, 산벚나무 등 9만9725 그루를 심어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반 조성에 앞장선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숲을 누릴 수 있는 미래적인 투자다. 산림자원 보호에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죽도, 유채꽃에 물들다

울릉군의 가장 큰 부속 섬, 죽도에는 4월 초 현재 노란빛 유채꽃이 만발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다. 3250㎡(984평)의 유채꽃 물결이 울릉도(島) 섬의 능선과 바다와 함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이색적인 풍광을 자아내고 있다. 군이 추진한 '죽도 유채꽃 조성 사업'은 2002년을 첫 시작으로 매년 시행했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중단, 지난해 가을에 유채 씨앗을 파종(면적: 3,250㎡)하여 성공리에 개화했다. 죽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 44개 중 가장 큰 섬으로 대나무가 많아 죽(竹)도라고 불리고 있으며 사면의 수직 절벽이 비경을 이룬다.



영덕군, 황금어 치어 방류

영덕군은 영덕황금어어종보존회와 함께 지역을 상징하는 군어(郡漁)이자 특산물인 오십천 황금어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을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자체적으로 시행했다. 군과 보존회는 황금어 치어의 고유한 유전적 특성과 개체수를 보존하기 위해 매년 오십천에 서식하는 자연산 성어를 포획, 알 반기와 수정 과정을 거쳐 관내 주요 하천에 치어를 꾸준히 방류하고 있다. 올해는 약 90만 마리의 치어를 생산해 6~8cm 가량의 60만 마리를 방류, 남은 30만 마리는 다가올 황금어어축제를 위해 육성하고 있다.



영양군은 찾은 베트남 32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양군, 영농철 일손돕기 탄력 붙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320명 첫 입국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 큰도움 기대

영농철 일손돕기에 탄력이 붙었다. 320명의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영양군을 찾았다. 이들은 1차 280명, 2차 40명 총 32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대구 및 청주공항을 통해 오는 11일 까지 5회에 걸쳐 입국한다.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농가의 희망 시기를 최대한 고려, 농번기에 맞춰 들어온다. 주요 준수사항 및 안내사항 등 관련 교육을 하고 농가에 배정한다. 배정된 근로자 중 1차의 경우는 E-8 비자로 기본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이다. 2차는 C-4 비자로 90일간 농가에 머물면서 파종·경작 등의 일손이 부족한 농작업을 수행하며 우리군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배운다. 이들 중 E-8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

자는 입국 당일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마약검사를 한다. 이후 3개월 이내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를 방문, 외국인 등록을 마무리한다. 현재 군에서는 마약검사비, 외국인 등록 수수료, 산재보험료 지원, 부식 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 방문, 점검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고추 파종기를 맞아 입국하게 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덕분에 우리군의 일손부족 해결과 인건비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농가주와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지원과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6월과 8월 추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영양을 찾는다. 올해 총 296농가, 894명의 근로자가 입국한다. 권윤동 기자

울릉 미래... 청소년들이 짊어진다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발대식 청소년 권익 증진 최선 다해

울릉군이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은 지난 5일 울릉군청소년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렸는데 관내 초·중·고생 32명과 청소년지도사, 학부모 등이 참여했다. 청소년 참여기구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로 짜여졌다. 참여위원회는 지자체 청소년 정책수립 및 청소년 사업과 관련,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 정책에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기구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평가에 직접 참여한다. 청소년 참여의식을 확대, 청소년들의 욕구와 의견이 실제 운영과정에 반영·개선시키는 역할을 하는 참여기구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를 둔 위원회다. 발대식에서 위촉장 수여와 연간 활동계획을 공유하는 군수와의 간담회와 식목일을 맞아 한마음 회관 다목적홀 앞 화단에 백일홍, 비올라, 제라늄, 마가렛 등 봄을 알리는 봄꽃 1000그루 모종을 심어 환경보호와 식목일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됐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위한 정책에 의견을 내고 참여해 실질적인 청소년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앞으로도 참여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윤환 기자

영덕군,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 표창 영예

사회적 약자 배려한 열린 민원실 높은평가

영덕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안부가 전국 245개 광역·기초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국제청 등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환경, 서비스, 현지 체류, 만족도 조사 등 4개 분야 24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기관 선정한 후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5월 종합민원처리과 새단장 공사로 민원실 공간을 확장, 민원 환경을 개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민원실 공간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도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을 통하는 모든 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고 서류 작성대 시설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과 임산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를 배려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상 깊었다. 영유아를 동반한 민원인이 쾌적한 공간에서 기저귀를 바꿔주거나 수유실과 담당 공무원과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민원상담실 설치했다.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어디서나 잘 보이는 3면 안내판 제작,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위한 강화유



김동희 영덕부군수(왼쪽 5번째)와 종합민원처리과 직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4번째)과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을 기념하고 있다.

리 설치 등 민원 행정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 향상에 힘쓴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여은 기자

경북공공배달앱, 맥게비와 함께 온 봄소식~

울진군은 8일부터 경북 공공배달앱 맥게비 봄맞이 할인 행사를 한다. 행사는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3000원 할인쿠폰 1750매를 발행, 소비자들은 매일 1장의 쿠폰을 사용,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고 행사는 쿠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경북 공공배달앱 맥게비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은 가입비와 광고료 없이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고 1.5%의 중개수수료를 통해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다양한 할인쿠폰 사용과 울진사랑카드 결제가 가능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22년 9월 1일 오픈한 맥게비는 181개 업체가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10만건 이상의 주문이 발생, 총거래액은 25억6000만원이다. 울진사랑카드 결제 비율은 66.99%(경북 도내 1위)로서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맥게비 가맹점 신청은 맥게비사장님사이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맥게비를 설치 후 사용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경북 공공배달앱 맥게비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고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청송군, 청송사과 위상... 경쟁력 높인다

고밀식 재배기술 확산 청송사과 미래형 과원 조성 교육 교육생 모집

청송군이 '2024 청송사과 미래형 과원 조성 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은 2~9일까지 7일간인데 관내 사과재배 농업인 및 예비 귀농인이 대상이다. 교육은 증가하는 다축·고밀식 사과 재배기술에 대한 교육 수요 충족과 더불어 미래형 과원 조성 기술을 농가에 보급, 노동력 절감 및 생산비 감소로 농가소득 증대에 한 몫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2일 공통교육을 시작으로 19일까지 기간 중 총 3회, 각 반별로 현장학습을 한다. 공통교육은 농업기술센터 서경수 과수기술팀장이 사과재배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교육을 강의한다. 현장학습은 교육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읍·면별로 반을 총 3개(진보·파천면·청송읍, 주왕산·남·현동·현사·안덕면)로 분반한 후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한 반당 40명이다. 교육신청은 청송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청송사과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준비한다. 관내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청도군, 농산물 가격 안정 역할 톡톡

수출 애로상담실 운영... 수출 판로개척 해소 기대

청도군은 농업기술센터 3층에 수출애로상담실을 설치 운영한다. 군 관내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발굴·상담한다.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판로 확대를 선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업체들이 해외 수출과정에서 통관, 검역 등의 규제와 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전화, 이메일, 직접 방문상담 등이 이뤄진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금요일은 오전 12시까지)이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부터 △ 해외시장 정보 △ 목표시장 설정 △ 해외 마케팅 △ 해외인증 △ 선적과 통관 절차 △ 운송보험 등 다양한 솔루션(어떤 단체나 기업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 쇄신을 피하거나, 미숙련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선진 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종합적인 운영 시스템)을 제공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해외 수출확대를 통해 내수시장 판로 확대에 한계가 있는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군은 수출애로상담실 운영으로 수출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현장 지원에 더욱 힘쓴다. 조여은 기자

영천 영주
봉화 고령
성주 의성



영천보건소, '건강백세 Yes~
골골백세NO'

영천보건소는 8일부터 새달 3일
까지 금요일 오계2리 경로당, 화남
면 금요일 오계2리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
2회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한 낙상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프로그램은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팀이 허약노
인으로 등록된 어르신들의 신장·
체중·약력·보행능력 등 기초체력
을 측정하고, 낙상예방 건강 체조
를 8회 시연한다.

체조는 소도구를 이용한 맞춤형
근력운동으로 낙상예방에 도움을
주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동작으
로 구성됐다.

박선희 영천보건소장은 "낙상
예방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안전
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
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



봉화군, 튼튼이 건강교실

봉화보건소는 4~5월까지 어린
이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
해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약
300명을 대상으로 '튼튼이 짱! 튼
튼이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건강교실은 평생건강의 기틀이
마련되는 유아기에 균형 잡힌 영
양섭취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
른 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하도록
교육, 건강한 성장발달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어린이 건
강교실을 통해 스스로 건강생활
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
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오치현 유창포장(주) 대표,
기부금 기탁

오치현 유창포장(주) 대표가 고
향사랑기부금 개인최고액인 500
만원을 의성군에 기탁했다.

의성 사곡출신이자 前제구미향
우회장을 역임한 오치현 대표는
지난해에도 고향사랑기부금 500
만원을 기탁하는 등 고향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구미에 있는 유창포장(주)은 골
판지를 활용한 상자 및 가공제품
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다.

오치현 대표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의성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
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했다"라며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 마음을 전
달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성주군, 오수수 모종심어... 어려움 겪는 위기가구 발굴 힘써
성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0여명은 지난 5일 성주읍 성산리 소재의 1700㎡ 협의회 텃밭에 영농사
업의 일환으로 옥수수 모종을 심었다. 성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 중 하나인 옥수수 재배는 협의
체 위원들이 텃밭을 직접 장만하여 모종을 심고 재배, 매년 7월 관내 주민들과 기관·단체들에 판매하고 있다. 옥수수 판매 수익금은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도재훈 기자

최기문, 신공항 특수효과 노리는 지혜 짜내라

영천시, 통합신공항 대응
연계분석 용역 최종보고회

영천시가 2030년 개항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
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신공항 특수효과를 폭넓히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짜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536만 평 규모)은 총사
업비 12조 8000억원을 쏟아붓는 메가급 사업
이다.

군위·의성뿐만 아니라 경북도 전 지역에 걸쳐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영천시는 지난 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영천시 통합신공항 대응 연계분석 용역' 최종보
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김진현 부시장을 비롯해 6개 관련 부
서와 ㈜이비재 추성태 대표, 금호농협 이상호 팀
장 등 수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자동차부품 산업 물
류센터 △농식품 콜드체인 거점센터 등을 통한 신
공항과 연계한 중점 과제 선점했으며, 과제별

입지분석, 추진방향, 실행방안 등을 도출함으로
써 향후 신공항에 대한 영천시 대응방향을 제시
했다.

김진현 영천 부시장은 "2030년 통합 신공항 개
항에 대비해 도출된 용역 결과뿐만 아니라 부서
에서는 추가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해 달라"라고 전했다.

시는 용역 결과를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경북도
항공물류산업 육성전략 실행계획 용역'과의 연계
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한다. 최은하 기자



영천시는 지난 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영천
시 통합신공항 대응 연계분석 용역' 최종보고회
를 개최했다.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초등생 창의융합 사고력 키운다

명품교육 도시조성과 미래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
회(이사장 성현덕)는 5일 쌍림초등학교를 시작으
로 관내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창
의융·복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쌍림초등학교에서는 저학년 대상으로 로봇을
활용한 코딩과 과학을 진행, 고학년은 카미봇 파
이에 대한 개념 이해와 실습하는 과정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는 관내 학생
들이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창의
융·복합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기획한 교육 과정으로 관내초등학교 8개교 512
명을 대상으로 4월에서 9월까지 각 학교별 학사일
정을 반영하였다. 배은백 기자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 숲길체험프로그램

천혜의 휴식 공간 지역주민
방문객에 특색 있는 서비스

의성군금봉자연휴양림은 오는 9~6월 30일까지
숲길등산지도사와 함께하는 2024 상반기 숲길체
험 프로그램을 운영 시작한다.

숲길체험프로그램은 휴양림 숙박객 및 관람객
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일
반프로그램인 치유의 숲길 '쉬명휴명'과 상시프로
그램인 숲빙고놀이와 숲길시화QR카드가 있다.

일반프로그램은 매주 화·수·목 오전 9시 30~11
시 30분, 오후 1~3시까지 운영한다.



체험비용은 무료, 사전예약제로 전화 접수로 운
영한다. 상시프로그램은 요일 및 시간제한 없이
연중 실시한다.

사전예약 접수없이 운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다. 체험비용은 일반프로그램과 동일하게 무료이

어린 친구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영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멘토-멘티 결연식 개최

영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6일 청소년문
화의집 다목적홀에서 2024년 멘토-멘티 이음 프
로그램 '어린 친구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멘토-
멘티 결연식을 개최했다.

멘토-멘티 이음 프로그램은 1388상담멘토지원
단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도움
이 필요한 청소년이 1대1로 결연을 맺고 1년 동안
정서적 지원, 학습지원, 문화체험활동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 1388상담멘토지원단은 시민카운슬러대학
과정을 수료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이 있
는 상담지도사들로 구성돼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을 위해 활동하는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산



하 봉사단이다.
결연식에서 각각 16명의 멘토와 멘티가 다양한
게임과 놀이 활동을 통해 상호신뢰 관계를 형성하
고 앞으로 활동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매영 소장은 "지역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인으로 성
장하는데 멘토-멘티 이음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봉화군, 부패 근절 청렴실천 앞장

봉화군은 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들
과 한자리에 모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청렴
시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봉화군 청렴추진협의
체' 회의를 개최했다.

청렴추진협의체는 위원장(군수)을 비롯해 부군
수 및 실과소장 등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으
며, 부패 취약분야 개선방안 마련, 청렴시책 발굴

및 공유 등 반부패·청렴시책 추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1차 회의에서 청렴도 향상 및 부패근절·청렴이
미지 쇄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과제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
였다.

한편,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
기 위해 사내 익명게시판에 게시된 건의 글에 대
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상기 기자

영천시의회, 저출생 극복 소매 걷어 부쳐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 개최
영천시 세종사무소 설치 등

영천시의회가 지난 5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
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가
졌다.

간담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영천시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세
종사무소 설치 계획 등 10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영
천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박주하 의원)' 1건과 의회소관 사항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을 위한 영천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
았다.

영천시 출산 양육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북도에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만큼 지금보다 더 다양한 정책
개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 관련 부서와 협
력,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하기때 영천시의회 의장은 "오늘 접수된 안건 및
조례안들을 잘 검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박현국 군수 이철우지사 만난 이유?

주요역점사업 지원건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박현국(사진) 봉화군수가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났다.

만남은 지난 5일 경북도청에서 이뤄졌다.

박 군수는 이 지사를 만나 주요 역점사업과 현안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박 군수는 △베트남 연꽃공원 조성사업 △모두
의 놀이터 조성사업 △유특재 군계획도로 정비공
사 등 으로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비 지원을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양수발전소 건립 대상지로 선정된 소천면 두
음리, 남회룡리 일원에 대한 현안사항과 향후 추
진방향에 대해서도 상호 논의했다.

박 군수는 "앞으로도 지역발전 위해 발로 뛰
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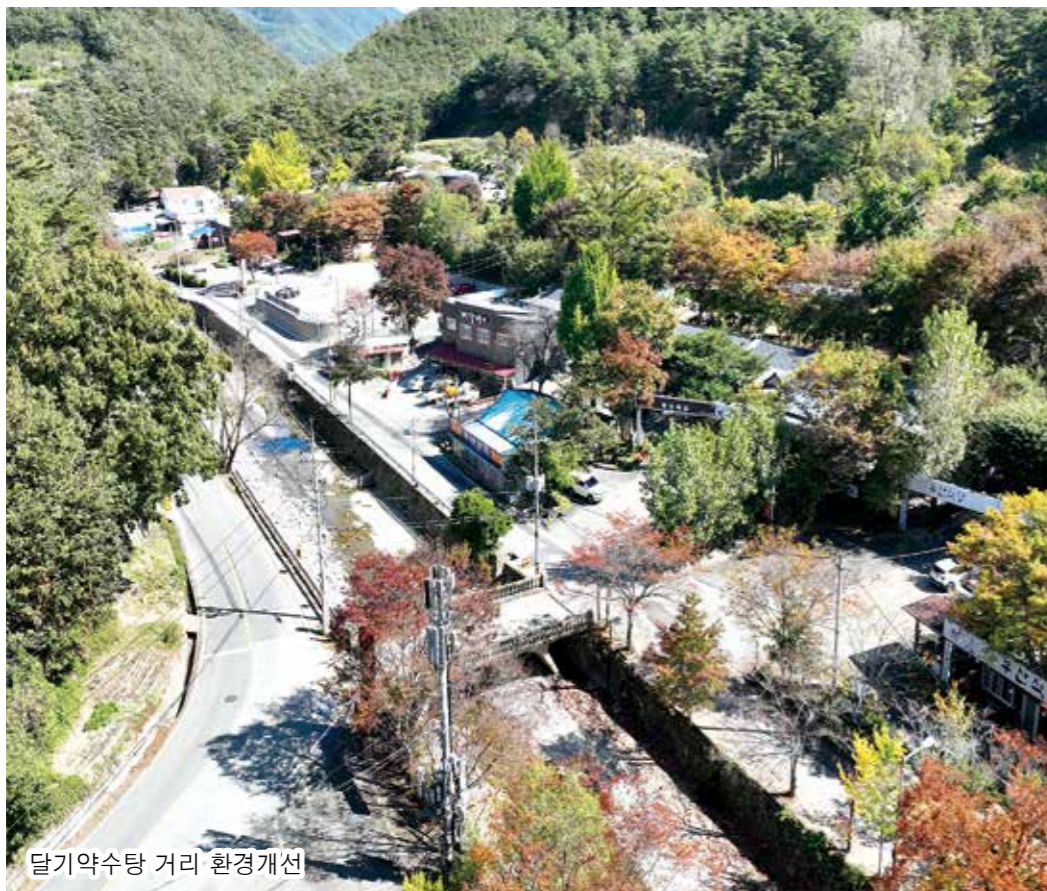
제17회 청송사과축제

윤경희 청송군수, 대한민국 최고 문화 관광 도시 건설

불·즐길·먹거리 공존 청송
 체류형 관광도시 발돋움
 청송사과 상표 가치 높여
 최고 사과축제 준비 분주

불·즐길·먹거리가 공존하는 청송을 만든다. 사람의 숨결까지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 관광 도시 청송군'을 건설한다.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려 관광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윤경희 청송군수가 한 말이다. 윤 군수는 청송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꽃 피우는 상생 경제로 부자 도시를 만들고 싶어한다. 때문에 청송군은 올해 다양한 관광 시책 사업을 추진해 '함께하는 문화관광, 상생하는 산소 카페 청송군' 조성에 나선다. 지금까지 유명세를 떨치던 관광지보다는 관광객이 몰리지 않는 여행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탓이다. 청송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고택이 즐비하고 다양한 지질 현상이 만들어 내는 깨끗한 생태환경이 보존돼 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은 '산소 카페 청송군'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군은 관광 유형에 맞춰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관광 사업으로 청송군의 특성을 살린 문화 관광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로 잘사는 청송을 만들기 위해서다. '산소 카페 청송군'의 차별된 청정 자연과 유서 깊은 전통문화, 참신하고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를 융합, 한층 많아진 관광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 관광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갈 전략을 세웠다. 우선, '주산지관광지 조성 사업', '한옥스테이 사업', '골목 경제 회복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유동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시킬 복안을 가지고 있다. 호텔과 글램핑장을 갖춘 '이색 숙박 시설을 조성'해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지역에 더 오래동안 머물게 한다. 무엇보다 '달기약수탕 거리 환경 개선'과 메뉴 다양화로 관광객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관광정책 다변화를 통해 청송형 관광사업의 외연을 확대한다. 지역민들의 여가 생활과 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는 청송 아웃도어 골프장과 진보면과 산남지역에 파크골프장을 만든다. 지역민들은 멀리 가지 않고 관광객들에게는 청송의 천혜의 자연에서 즐기는 공간 제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문화 관광 체험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청송을 대표하는 '청송사과축제'를 활용,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나간다. 올해 열리는 제18회 청송사과축제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등 청송사과축제만의 특장점과 색깔을 담아낸다. 청송사과의 상표 가치를 더욱 드높이고 청송의 위상에 걸맞은 최고의 사과축제를 준비한다. 윤병문 기자



달기약수탕 거리 환경개선

파크골프장 조성

한옥스테이 사업